



2015
vol.3

커버스토리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선유도 오룡묘
제사유적의 성격

박물관 사람들

교육 학예연구사
인터뷰 교육연구원

지상강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오월吳越과 후백제後百濟

상설전시실 소개

석전기념실

이야기마당

전시품 이야기
내 마음속 유적
옛날 사진 이야기
영화 속 문화유산 이야기
문학작품 속 음식이야기
자원봉사자 에세이

내가 찾은 박물관

국립전사박물관 이모저모
국립전사박물관 인터뷰
국립전사박물관 관람 소감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2015. vol.3

contents

04

관장칼럼

고려백자(高麗白磁)와
조선청자(朝鮮靑磁)

06

커버스토리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선유도 오룡묘
제사유적의 성격

24

박물관 사람들

교육 학예연구사
인터뷰 교육연구원

30

지상강의

국제학술심포지엄
오월^{英越}과 후백제^{後百濟}



34

상설전시실 소개

석전기념실



36

이야기마당

전사품 이야기
내 마음속 유적
옛날 사진 이야기
영화 속 문화유산 이야기
문학작품 속 음식이야기
자원봉사자 에세이

50

내가 찾은 박물관

국립전사박물관 이모저모
국립전사박물관 인터뷰
국립전사박물관 관람 소감



60

전시리뷰

毅齋의재 허백련



62

국외박물관 소개

시카고 박물관 탐방기



66

박물관 10배 활용하기

박물관 속 카페이야기

68

문화나눔

새싹 프로젝트



70

박물관 소식

전북 박물관 소개



78

박물관 캘린더

교육 프로그램 일정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옥고개로 249

전화 063-223-5651 팩스 063-224-0799

디자인 • 제작 디자인노리



고려백자(高麗白磁)와 조선청자(朝鮮靑磁)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려백자’와 ‘조선청자’가 그러한 사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알아도 고려에서 만든 백자와 조선에서 만든 청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백자는 청자가 처음 만들어지는 10세기 무렵부터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생산되었다. 즉 청자와 백자는 오랫동안 생명력을 같이한 도자기였다. 그릇의 형태[器形]나 문양(文樣)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작 방법이 청자와 같았다. 다만 백자 고유의 흙[胎土]을 찾아내지 못해서 청자를 만들던 고령토(高嶺土)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자기화(磁器化)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백자는 청자에 비해 질감(質感)이 약간 떨어지고 표면은 옅은 녹색이 감도는 유백색(乳白色)을 띠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고려백자의 초기 흔적은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앙리 등의 가마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용인 서리와 여주 중앙리에는 백자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곳이었다. 그 이후에도 부안 유천리와 같은 대규모의 가마 단지에서 고급 백자가 청자와 함께 생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자상감모란문매병(白磁象嵌牡丹文梅瓶)과 백자상감연당초문합(白磁象嵌蓮唐草文盒)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청자는 분청사기 및 백자와 함께 소량이나마 조선 초기부터 생산되었다. 주로 경기도 광주(廣州)의 백자 가마에서 17세기 중엽까지 생산되었다. 즉 백자를 생산하던 가마에서 백자와 같은 흙을 사용하되 백자와는 달리 푸른빛이 도는 유약(釉藥)을 그릇에 덧씌워서 구운 것이다.

그런데 각종 기록에 의하면 동궁전(東宮殿)에서 사용된 그릇이 청자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유교적 위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 왕실에서 왕과 왕비의 그릇인 백자와 구분하여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전용 그릇으로 청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하는 조선시대의 청자로는 청자항아리(靑磁壺)와 청자음각운문대접(靑磁陰刻雲文大楹)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고려백자와 조선청자는 한국도자사(韓國陶磁史)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의 명품 그릇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시대는 청자만이, 조선시대는 백자만이 생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문화를 단선적(單線的), 도식적(圖式的)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고려시대에 새롭게 청자를 만들면서도 백자까지도 만들어 유통(流通)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본격적인 백자 전성시대를 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약을 달리 사용한 청자도 만들어 왕실에 공급하였다. 보다 나은 도자기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들의 창조적 시도와 실패마저 기쁘게 감당하였던 인고(忍苦)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만을 기계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 문화의 다양성(多樣性)과 조상들의 창조성(創造性)은 간과(看過)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창조적인 변용(變容)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바야흐로 문화융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부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층에게라도 고려백자와 조선청자가 존재하였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좁은 폭의 이해를 극복하고 다양성의 시대에 어울리는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익산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2015년 7월 4일 토요일 오후, 독일 본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낭보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2개소),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능산리고분군·정림사지·나성(4개소)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평가하였다. 이 문화유산들은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삼국 고대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과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이 높은 찬사를 받았다. 이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이제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부여와 공주는 백제의 수도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삼국시대의 관련 유적과 유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익산지역의 문화유산이 2곳이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나 실제로 익산지역도 삼국시대 백제의 별도로서 몇 곳의 관련 유적이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대로 역사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인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공주, 부여, 익산은 이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브랜드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유산은 모든 인류가 주권, 소유권, 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있다고 인정되어 UNESCO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Mixed Heritage)을 말한다. 이 중 문화유산은 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 관리되며 기념물(monument),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 가운데 어느 하나에 또는 그 이상에 속하는 유형유산(Tangible Heritage)을 말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이거나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 문화 또는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인류역사상 결정적 순간이나 중요한 단계와의 관련성 등 몇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고고학적 문화유적이 그들의 의미를 얼마나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진정성 여부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속성의 완전무결함을 요구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은 문화유산의 속성과 잠재적인 가치 간의 연결성과 관계가 높으며, 현존하는 필수불가결한 모든 속성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소실,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익산지역의 문화유산은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 대한 국가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동안 20여 년간 지속된 발굴조사는 유적의 정체를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으며 익산이 백제의 마지막 고도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역시 왕궁리유적의 발굴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된다. 왕궁리유적의 전체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처음에 왕궁성이 조성되었을 때 만들어진 궁성관련 시설과 석탑 등 사찰관련 시설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서 약 240m, 남-북 약 490m의 장방형 평면 구조를 이루는 외곽의 경계는 기초 하단부 만이 잔존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공간은 동서석축4를 기준으로 그 남측은 전각구역, 북동측은 후원영역, 북서측은 공방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공간은 크게 동서방향으로 조성된 4기의 석축으로 남측 공장을 시작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구획하였다. 이러한 동서 석축은 내부 평탄대지를 조성하는 기반 시설이자 공간 구획 역할을 하였다. 내부에서는 총 35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34기가 전각구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건물지는 정전건물로 추정되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대형건물지, 하나의 지붕에 2개의 방이 있는 1동2실 구조와 기와로 기단을 쌓은 특징을 가진 건물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서측성벽과 구릉사이의 평탄 대지면에서 금과 옥, 유리를 만들었던 공방을 조사하였다. 공방시설과 그 내부의 금, 유리제품 및 유리 제작용 도가니, 슬래그 등을 통해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과 대단위 생산시설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왕궁리 공방터 출토 유리도가니

공방지와 함께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대형 화장실 3기도 조사되었는데, 서측의 공장을 관통하도록 조성된 석축 배수로의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가장 큰 화장실은 동서 길이가 10.8m, 폭 1.7~1.8m, 길이 3~4m이다. 내부에는 나무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았고 벽면을 점토로 덧입혀서 오수의 침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화장실의 오수는 일정량이 쌓이면 석축배수로와 이어지는 좁고 작은 수로들을 통해 배출되었다. 이는 현대의 정화조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화장실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바로 옆의 공방에서 생산작업을 하던 이들로 추정되며 공중화장실이었을 것이다.

왕궁리 5층석탑



또한, 화려한 조경석과 자갈돌로 중심부를 장식하고 물의 공급과 조절을 위해 조경석을 배치한 정원시설이 전각 구역과 동서 석축4의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정원에 부속된 다양한 시설들은 물을 모으거나 흘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물을 정수하는 기능도 있었다. 특히 후원에서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도수 관련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지는 1~2개소 정도로 극히 미미한 편이다. 후원에서는 흐르는 물이 흐르는 도수시설을 중심으로 그 외 와열배수로, 외곽으로 물 빼내는 출수 시설 등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유행한 도성의 구조와 평면을 왕궁리유적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찰관련 시설로는 왕궁리유적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높이 9m정도의 왕궁리 5층석탑이 대표적이다. 탑은 백제계의 양식을 따르며 미륵사지 석탑을 모방한 단층기단과 얇고 넓은 옥개석, 3단의 옥개받침이 특징적인 석탑, 그리고 석탑 뒤편으로 금당지, 강당지 등도 확인되어 5층석탑-금당지-강당지의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보여준다. 출토된 명문과 및 토기 등은 사찰이 고려시대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왕궁리 출토 명문와



왕궁리 석탑 출토 사리병과 사리내함



고도익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은 미륵사지이다. 미륵사지는 1980년도부터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10여 년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륵사 원래의 가람은 중문-목탑-금당을 배열한 중원과 이를 완전히 둘러싼 회랑이 있으며, 중원 양 옆에 중원의 남북 축선과 평행하고 중원의 각 건물과 같은 형렬 축선상에 중문-석탑-금당을 배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서석탑은 2002년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갔으며 2009년 1월 백제 무왕 때에 봉안된 사리장엄이 발견됐다.



익산미륵사지 석탑



익산미륵사지 당간지주

미륵사지 석탑 내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에는 사리호, 금제사리봉영기, 은제관식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미륵사 창건과 성격은 물론 연대 확인으로 백제의 역사와 불교문화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백제사 최고의 고고학 성과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으며, 불사리장엄구는 14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뛰어 넘어 그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백제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있다. 이제 미륵사의 창건은 삼국유사의 기록과 사리봉영기의 기록대로 백제 무왕대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무왕은 미륵사를 창건함으로써 불국토의 건설을 꿈꾸었다. 미륵불이 하생할 때에 이 세상에 전륜성왕이 등장한다는 경전의 내용을 감안하면 백제 왕실의 미륵사 창건의 배경에는 당시의 국왕이 곧 전륜성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전륜성왕의 권위를 빌려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전륜성왕의 정법에 의한 통치라는 불교적 이상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 했던 희망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익산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비밀이 많이 남아 있다. 백제 무왕은 어떤 이유로 익산에 왕궁을 세우고 거대한 사찰을 조영한 것일까? 왕도 익산에서 꿈꾸었던 그의 큰 뜻은 무엇이었으며, 왜 갑자기 익산을 버리고 다시 부여로 돌아가 버렸을까?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는 임시적인 별도를 조성하고 왕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만든 그런 사치스런 시설에 불과한 것일까? 등등 ... 의문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익산미륵사지 출토 녹유와

오늘도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에서는 발굴조사와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아마도 단일 유적으로는 국내 최장기 발굴이 이루어진 곳일지도 모른다. 어떤 유적보다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석탑을 중심으로 한 사찰 조사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왕궁내부의 시설과 그 외곽인 왕경의 구조와 경관을 체계적으로 찾기 위한 조사와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작은 조각들이 서로 짜 맞추어지는 퍼즐처럼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고도익산의 문화유산들은 한 조각씩 맞춰져 연결되어 가고 있다.



익산미륵사지 출토 와당

이러한 시점에서 고도익산의 문화유적이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앞으로 백제사 연구와 콘텐츠 확충에 있어서도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계획을 고려해 두어야 할 좋은 계기로 생각된다. 또한, 백제의 문화가 동아시아를 넘어 보다 넓은 지역으로 알리는 하나의 창구로서 백제문화제를 기획하고 세계인의 역사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경주의 석굴암과 불국사, 양동마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직후 방문객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며 지역사회의 관광 문화와 소비활동에 긍정적인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그 반면에 문화재관리정책에 대한 지역민과의 갈등,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부족, 유적 발굴, 정비, 복원사업과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세계유산 관리의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태도와 지지는 세계유산의 의미와 등재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은 방문객을 만족시키고 긍정적인 관광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확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고도익산에서 펼치고자 했던 무왕의 꿈은 아니었을까?

선유도 오룡묘 제사유적의 성격

고군산군도(군산도)는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며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등 12개의 유인도와 50여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항에서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까지는 약 50km로 여객선으로 약 1시간 걸린다. 현재 새만금방조제 사업을 통하여 야미도와 신시도는 방조제가 연결되어 왕복 4차선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신시도에서 선유도까지는 어선으로 약 20분정도 걸려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2014년 개통을 목적으로 신시도에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를 잇는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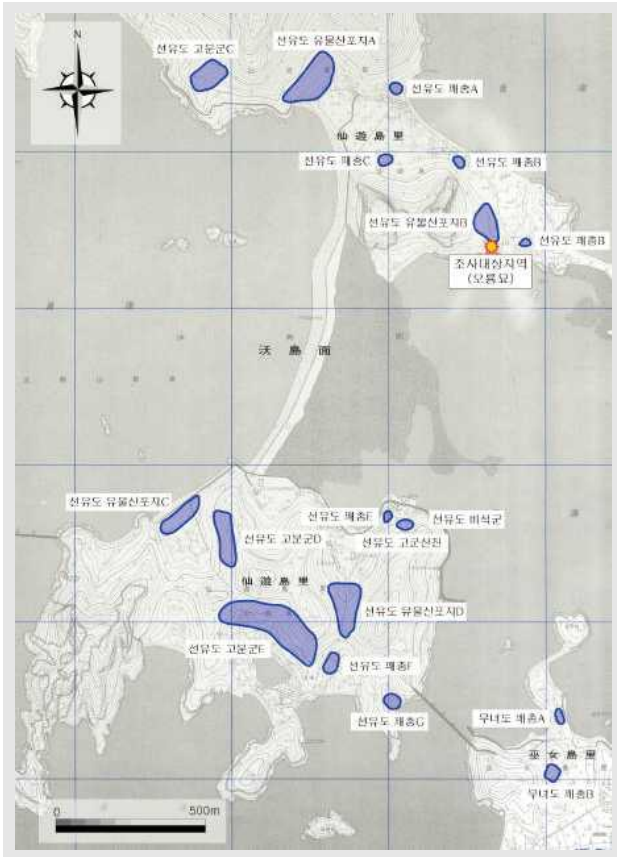
선유도



선유도는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신선들이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 때 남섬과 북섬의 두 개 섬으로 분리되었는데, 1960년대 선유도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개설된 시멘트도로로 연결되었다. 선유도에 솟아있는 망주봉은 해발 80m의 두 봉우리와 해발 25m의 작은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선유도 2구와 3구는 육계사주(陸繫砂洲)로 연결되어 해수욕장을 이루고 있다. 선유도의 동남쪽에 있는 무녀도는 1986년에 268m의 선유교로 선유도와 연결됨으로서 선유도와 같은 생활권이 되었다. 선유도 망주봉의 동쪽 산봉우리 중단부 숲속에는 오룡묘(五龍廟)가 위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9월~10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실시한 오룡묘 제사유적 추정지 시굴조사를 중심으로 오룡묘에 대한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망주봉





도면 1.
선유도 문화유적 분포 및
오룡묘 시굴조사 지역 위치도

선유도 문화유적 분포 및 오룡묘 조사내용

선유도는 군산도에서 문화유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유물이 많이 수습되었다. 지금까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는 고분군을 비롯하여 패총, 유물산포지, 비석군, 고군산진 등 22개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2010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군산 선유도 일원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망주봉 일원(지표조사 당시 선유도 유물산포지 F로 명명됨)에서 고려시대 기와편, 최상급의 삼감청자편, 일부 중국제로 추정되는 청자 편 등이 상당량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이 구역을 고려 인종(仁宗) 원년(1123)에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경(徐兢)이 편찬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송산행궁을 비롯하여 군산정, 오룡묘, 자복사 등 많은 건물이 군산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3년에는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2010년 지표조사 당시 확인된 유물산포지 중 선유도 망주봉 일원의 고려시대 송산행궁과 군산정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적의 성격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송산행궁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건물지의 시설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적심시설, 배수로, 담장시설, 성격미상의 석렬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군산정 추정지에서는 성격을 알 수 없는 석렬이 확인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에서 각종 청자류와, 도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12세기에서 14세기에 사용되었던 양각연판문, 상감퇴화문 등의 최상급 청자편과 명문기와편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층위 상 건물지 운영될 당시의 구지표층에서 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건물지의 조성 및 운영 시기는 고려시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서경(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군산도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유도 송산행궁지 조사모습





“6일 정해에 아침 밀물을 타고 운항하여 진각(오전 7시~9시)에 군산도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그 산은 열두 봉우리가 잇달아 연결되어 있는데, 동그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이 성과 같다. 여섯 척의 고려 배가 와서 맞아 주었는데...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해안에서 깃발을 잡고 늘어서 있는 자들이 1백여 명이나 되었다. 동접반이 서신과 함께 정사, 부사 및 삼절의 조반을 보내왔다. 정사와 부사가 접반에게 이첩하여 국왕에게 그들의 도착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알리는 서장을 보내니, 접반이 채색 배를 보내어 정사와 부사에게 군산정으로 올라와 만나주기를 청하였다. 그 정자는 바닷가에 있고 뒤에는 두 봉우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 있고 높은 절벽을 이루어 수백 길이나 치솟아 있다. 문 밖에는 10여 칸의 관아가 있고, 서쪽의 가까운 작은 산 위에는 오룡묘와 자복사가 있다. 또 서쪽에 송산행궁이 있고, 좌우 전후에는 민가 10여호가 있다. 오시 후에 정사와 부사는 송방(松紡)을 타고 해안에 이르렀고, 삼절은 수종 인원을 이끌고 관사로 들어갔는데, 접반과 군수가 달려와 맞이하였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6 海道3 群山島)

위 기록에 의하면, 군산도에는 사신을 접대하는 객관(客館)으로 쓰인 군산정(群山亭)이란 건물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관청 건물도 있었다. 거기에는 바다신에게 제사지내던 곳으로 추측되는 오룡묘(五龍廟)와 불교 사원인 자복사(資福社), 그리고 송산행궁(松山行宮) 등이 있었고, 민가(民家)도 10여 호가 있었다고 한다. 또 무장한 군사를 실은 6척의 배가 송나라 사신의 배를 호위하고, 군산도 안에도 다시 1백여 명이나 되는 군사가 도열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정부가 정책적으로 군산도에 군사력을 배치했던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고려시대 군산도는 서해안의 중요한 군사 기지 및 해양교류의 거점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도경 사우 오룡묘조에 오룡묘는 객관 서쪽 한 봉우리 위에 위치하고 있고, 전에는 작은 집이었으며, 훗날 집 뒤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 한 채의 집을 새로 지었다. 정면에 벽이 있고 그 벽에는 오신상(五神像)이 그려져 있었으며, 뱃사람들이 오신상에 엄숙하게 제사를 지냈다. 서남쪽 큰 수풀에 송산신 별묘라는 작은 사당이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1992년 부안 죽막동 해양제사유적 학술발굴조사 실시 이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등 한반도 해안을 중심으로 고대 제사유적을 비롯한 한반도 해양제사 유적의 성격 및 특징 규명을 위하여 추가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에는 2014~2015년 선유도 망주봉 일원에 대한 현지 지표조사를 통해 오룡묘(五龍廟)를 비롯한 제사유적 추정지를 확인하고, 기 조사된 죽막동 제사유적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해양제사 네트워크의 성격규명 및 향후 문화재지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15년 9~10월에 오룡묘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오룡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망주봉 기슭의 오룡묘 모습

오룡묘



도면 2. 오룡묘 주변 트랜치 계획도

선유도 1구 마을 맞은편으로 보이는 망주봉 기슭에 잡목과 노송으로 둘러싸인 오룡묘 당집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당산제와 3년마다 별신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모두 중단되어 지내지 않고 있다. 오룡묘 당집의 건물은 정면 550.5cm, 측면 306cm의 규모로서 기와지붕이며, 기둥은 모두 12개이다. 건물정문은 두 짝 여닫이문(78×130cm)으로 되어 있다. 당집 내부에는 오규우왕 · 명두아가씨 · 최씨부인 · 수문장 · 성주 등 5개의 화상이 걸려 있었으나 모두 도난당해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세 개의 화상액자와 제기가 남아 있으며 ‘五龍廟’라고 쓴 편액(101×43cm)이 보관되어 있다. 건물은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아 좌측 흠벽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정면의 기둥들도 부식되어 있고 지붕에는 풀이 자라고 있다.

현재 망주봉 일원에서는 일부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청자편, 기와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오룡묘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2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망주봉 동쪽 산봉우리 중단부 숲속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의 오룡묘 건물은 2012년에 보수한 것이다. 시굴조사는 오룡묘의 위치 파악을 위하여 건물의 좌측, 우측, 정면에 3개의 피트를 설치하여 조사하였으며, 오룡묘 앞 남쪽의 비교적 넓은 구릉지는 트랜치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정면과 우측면 피트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측면 피트 내 북쪽에서 망주봉 자락의 암반이 노출되어 확인되었고 일부 기와편들이 교란되어 노출되었을 뿐 건물지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건물 좌측의 피트 내에서는 크고 작은 할석과 잡석으로 형성된 기단석렬이 확인되었다. 기단석렬은 길이 250cm이며 현재의 오룡묘 건물의 기단부분과 맞물려 확인되고 있어 동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렬의 좌측면에 폭 1m정도의 탐색트랜치 조사를 통해 기단석은 3단으로 축조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하부에는 폐와적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기단석 주변과 그 하부에서 청자편과 백자편, 기와편이 뒤섞여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여러 번 증축하여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릉묘 앞의 비교적 넓은 구릉지는 3×14m 규모의 트렌치 3개를 구획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토하 30cm 정도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경사지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출토유물은 상부 트렌치에서 기와편 일부만 확인되었을 뿐 별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표조사 시 제사유적으로 추정되는 선유도 산26번지 일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추후에 조사하고자 한다.



오릉묘 주변 조사 모습 및 단면 노출 상태



트렌치 조사 모습



출토 유물



선유도 산26번지 수습 유물

이상과 같이 선유도 망주봉 일대의 시굴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주봉 주변에는 많은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망주봉 동쪽 산봉우리 기슭 중단부에는 오룡묘가 있었으며, 북쪽에는 자복사와 셋터마을 일대에는 관아인 객관, 망주봉 서쪽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는 군산정과 송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 무역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고군산도의 오룡묘는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단의 배가 들어온 항구와 가깝고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바다가 한 눈에 잘 조망되어 해양제사의 제장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지표 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고려시대 이전에는 아마도 망주봉 동남쪽 말단부 해안 지금의 옥돌 해변 인근인 산 26번지 일대의 갯바위 주변에서 갯제나 해신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유도의 제사유적은 바다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다의 조망이 가능한 곳인 산26번지에서 시작되었다가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망주봉 중턱인 오룡묘로 이동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망주봉 일대에서 고려시대에 조성된 건물지의 흔적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 일대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고려시대뿐 아니라 선사와 역사시대를 아우르는 군산도의 해양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Museum Educator

교육 학예연구사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전주박물관 에듀케이터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이뤄지는 교육 전반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조사·연구, 보존·복원, 전시, 교육 등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그 중 교육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박물관 에듀케이터’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박물관 에듀케이터는 교육대상자에게 박물관 전시의 기획의도, 유물과 관련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박물관 교육의 중심은 유물을 기반한 교육 활동과 그 대상입니다. 때문에 제일 먼저 박물관 에듀케이터는 유물 또는 전시와 관련한 역사·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물과 함께 중요한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단체로 방문할 것인지, 가족 단위로 방문할 것인지 등에 따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교수방식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가지 프로그램 기획을 해보면서, 박물관 에듀케이터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국립전주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은 하루 수백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평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들이 조선 왕실 문화 체험을 위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좀 더 아이들에게 유익한 문화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5~7세 눈높이에 맞는 박물관 교육활동은 무엇일지,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경험하게 할 것인지 등에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간, 방문하는 인원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의 필요needs와 요구wants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대상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그런 고민으로 그림자 연극을 통한 영유아단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림자 연극이라는 접근방식으로 4~5가지 동물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동기유발)하고, 직접 전시장에서 유물 속 용을 찾는 과정으로 유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지요. 그리고 용과 관련한 상징성과 조선 왕실 문화에 대해 연결 지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며 상상의 용을 표현해 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마무리 됩니다.

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민 끝에 기획되고 운영되어 집니다. 박물관은 특히,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물을 통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생각을 키우고 넓힐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에듀케이터로 일하며 가장 즐거움은 바로 여러 사람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선생님들과의 협업, 다양한 교육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위한 전문가(전문기관)와의 협업 등은 끊임없이 서로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박물관과 관련 있는 고고학, 미술사, 역사학 혹은 교육 공학, 미술교육, 역사교육 등 교육과 관련한 전공을 한다면 앞서 말씀 드린 유물과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대상과 이뤄지는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박물관, 미술관에서 교육 관련한 실무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박물관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청소년 큐레이터'는 박물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전시기획, 보존처리, 교육-에 대한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읽는 분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청소년 큐레이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Q. 교육전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교육연구원

박한나 / 백수미 / 양연주

박한나 학부에서 미술사와 사학을 전공하면서 학교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린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성인 강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박물관에서 교육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역사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죠.

양연주 저는 학부 졸업 후 막연히 유물 보존이나 유물 관리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좋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 기업박물관에서 인턴의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박물관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생소한 분야였지만 유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학교 교육과는 다른 더 풍부한 소재와 이야기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정말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여러 박물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실무를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박물관 미술관 교육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관련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어요. 저의 전공 학과에서는 박물관 교육과 관련한 이론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실무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백수미 원래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일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기뻐요. 학부때 미술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예술기획을,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함과 예술적인 배움까지 접목시켜서 전달 할 수 있어서 보람이에요.



Q. 현재 박물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박물관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한나 박물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하면 먼저 교육 프로그래밍을 하고, 수업을 해요. 교육 후 평가도 해요. 또 어린이박물관 전시운영에 관한 일을 하기도 해요. 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것은 다양한 전시에 맞게 재밌는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 교육처럼 틀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교육 과정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양연주 저는 지금 박물관 교육 분야 학예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교육 학예사님 밑에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진행, 운영, 어린이박물관 운영과 관리를 함께 도와 일하고 있어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이예요. 특히 교육 분야는 그 대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또 다양한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되요. 모든 사람들이 방문 할 수 있는 박물관에서 유물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분야는 전공이 다양한 선생

양연주 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일을 할 때 정말 재미있어요. 서로 배움의 밑거름이 달라서 그런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들이 팡팡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박물관 교육 분야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사이가 참 좋고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혼자 끙끙대며 일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돕고 생각을 보태어가며 뭔가를 만들고 이루어내는 작업이 매력적이에요.



백수미 박물관에서 주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의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박물관에서 근무하면 역사와 유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사담이지만 국립전주박물관은 풍경이 아름다워서 출근할 때의 상쾌함이라까 그것 또한 즐거움이예요.



Q. 교육학에연구직을 전공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한나 박물관 교육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대상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만나야 해요. 그래서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연주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인턴이나 보조교사의 역할로 현장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고 교육학예사로서의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공부도 꾸준히 많이 해야 하고 창작의 고통도 따르고 체력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있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이지요 재미있다고 느꼈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이 든 만큼 정말 재미있는 일이지요.

백수미 성인교육이나 어린이 교육이나 모든 교육은 근본적으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이 담긴다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소통이 가능한 교육이 될거예요.

국제학술심포지엄

오월^{吳越}과 후백제^{後百濟}

오월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과 공동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 “오월(吳越)과 후백제(後百濟)”를 11월 27일(금)에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특별전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2015.10.27.~12.20.)과 연계한 행사로 최신 한·중·일 고고학, 미술사 성과를 토대로 오월과 후백제의 밀접했던 교류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주(全州)는 조선왕실의 본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 견훤이 후백제(後百濟, 892~936)의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견훤은 900년에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후백제를 세운 다음, 오월(吳越, 907~978)과의 사신왕래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당시 오월은 오대십국(五代十國)시기 강소성·절강성을 중심으로 번영한 나라로 중국 최대 청자 생산지인 월요(越窯)가 위치한 곳이다. 또한 중국 남해교역의 종점이자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후백제에게는 대중국 해상교역에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후백제는 오월과의 수교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굳건히 하였으며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후견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은 기초강연 ‘후백제와 고려의 오월국 교류 연구의 현단계’(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비롯하여 모두 5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1주제는 ‘후백제와 오월국의 해상교통로’(백승호, 중국 절강대학), 2주제는 ‘후백제의 오월항로와 신라’(다나카 도시아키, 일본 시가현립대학), 3주제는 ‘동고산성 성문의 형식 변화에 대한 검토’(강원중, 전주문화유산연구원), 4주제는 ‘후백제와 오월의 불교조각 교류’(진정환, 문화체육관광부), 5주제는 ‘오월 시기의 월요’(심악명, 중국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이다.

기초강연에서 이도학 교수는 후삼국시대 한반도 정치세력과 오월국과의 교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후백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이유를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근거로 한 후백제와 오월국과의 지리적 관계에서 찾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진훤(이도학 교수는 견훤이 아닌 진훤이라 불러야 함을 이 발표에서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다)이 신라군 비장으로 순천만과 광양만에 둔영(屯營)했던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았으며, 광양의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해수문포도방경이나 월주요에서 제작된 도자의 존재를 그 물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후백제와 고려의 오월국과의 교류가 정치 뿐 아니라 불교 사상을 비롯한 문화 전반과 경제 분야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오월국이 후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이유를 구명하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중국 절강대학의 백승호 교수는 후백제와 오월국의 교류에서 주로 사용했을 남부사단항로의 개척과 활용, 변화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7세기 중엽, 일본 견당사들이 한반도 정치상황의 악화로 종래 활용했던 서해안 연안항로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로 개척에 나서면서 개척된 것이 바로 남로이며, 이 개척 과정에서 신라 남해안 일대에서 당나라 강남지역으로 오가는 남해안 사단항로가 동시에 개척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매우 험난하고 특히 나당 간에는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중국을 오갈 수 있는 황해중부 횡단항로가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어 장기간 침체되어 있다가 장보고 피살사건 이후 서해안 해상세력과 횡단항로 통제가 강화되자 종래 장보고 무역체계 밑에서 활약했던 재당 신라상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중국 강남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중국 상인 등과 함께 남로를 이용하는 대일무역에 적극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로와 관련된 남해안사단항로도 점차 활용되면서 한반도 남부지역에도 해상무역활동이 빈번해지고 새로운 해상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신라조정의 명을 받들어 방수군으로 서남지역에 파견된 견훤은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를 통해 비장의 자리에 올랐고 나아가 이들을 초기 기반으로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주로 도움을 청한 후 부안, 군산, 김제를 아우르는 만경강 입해 구지역이 견훤의 서해안 새로운 해상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오월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종래 남해안사단항로와 공통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 나주해상세력의 저항으로 나주해역을 장악하는데 실패하자 새로운 항로모색에 나섰을 것이며 그 결과 서해안 사단항로가 개척되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나카 도시아키 일본 시가현립대학 교수는 후백제가 오월과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전제가 되는 신라의 외국 항로 변천 및 한반도 서남 해역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오월 항로 및 그 이전, 신라 대의 항로의 변천, 왕건의 서남 해역 진출, 견훤의 오월 통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의 강원중 실장은 전주 동고산성 성문의 입지와 형식,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몇 가지 유물을 가지고 산성의 전반적인 운영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문의 변화과정을 통해 각 단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지만 성문은 다른 성곽시설처럼 수시로 보수되고 개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성곽 조사를 통해 산성의 성격과 시기를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견해도 밝혔다.

후백제와 오월의 불교조각 교류에 대해 진정한 학예연구사는 후삼국기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후백제 불교조각은 당연히게도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백제의 계승’이라는 국시를 대·내외에 표방하기 위해 백제 불상의 일부 형식을 재현하였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후백제 불교조각에서 후백제와 빈번한 교류를 하였던 중국 오대 불교조각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 특히 오월 불상의 특징인 풍부한 양감의 얼굴과 평판적이고 홀쏘한 신체를 띠는 후백제의 불교조각이 후백제와 오월의 중요한 무역항이었던 군산지역 인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백제와 오월과의 교류는 외교관계에 머물지 않고 불교조각과 같은 문화 분야에서도 빈번했을 것이고 이렇게 유입된 오월의 불교조각은 고려의 불교조각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 오대 불교조각에 대한 검토가 완전하지 않아 통일신라 후기에 유입된 만당기 불상양식의 변화상인지 오대 오월의 영향인가에 대해 단정할 수 없어, 다층적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곁었다.



마지막으로 월요가 있는 절강성 문물고고연구소의 심약명 선생이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지정토론을 맡으신 김영미 학예연구사가 발표를 대신하여 주었다. 월요 청자 연구의 대가답게 오월 시기의 월요 청자의 특징에 대해 일목요연한 정리를 해 주셔서 월요 청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오월과 관련한 우리나라 초기청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은 군산대학교 객장근 교수가 맡아 오월과 후백제를 둘러싼 현 연구단계와 문제점을 상호 진단하고 향후 연구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 심포지엄이 향후 후백제 역사복원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석전기념실

서예가로 명망이 높은 석전 황욱을 기리는 전시실이다. 석전의 자제인 황병근이 1999년부터 오천점이 넘는 문화재를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에 국립전주박물관은 2002년 11월 석전기념실을 개관하여 석전의 친필 서예와 가전 및 수집한 옛책, 서예, 편지 등 150여점을 전시하였다. 특히 석전의 전기 작품부터 후기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석전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위와 이삼만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석전의 전기 작품

석전이 악필법(握筆法: 손바닥으로 붓을 움켜잡고 쓰는 필법)으로 글씨를 쓰기 전의 작품들이다. 석전은 전기에는 해서·행서·초서 등의 서체를 즐겼다.

석전의 후기 작품

석전은 수전증을 극복하기 위해 70대부터 악필법을 구사하였다.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가 오른손의 악필이 곤란하게 되자 87세 이후에는 왼손 악필을 구사하였다. 이를 통해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모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석전기념실

石田 黃旭
선전황욱

석전의 유품

석전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유품이다. 지팡이와 모자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붓과 붓통, 경상, 그리고 서적들이 전시되어 서예가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다.

평해 황씨 유물

평해 황씨인 석전의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들을 전시 하였다. 조부인 황중윤의 초상을 비롯하여, 이재 황윤석이 지은 백과사전식 과학서적인 『이수신편(理數新編)』 등이 전시되어 있다.



황
중
윤
초
상
黃
鍾
允
肖像



고창 출신 황중윤(1858~1911)이 54세인 1911년에 그린 것으로 당대의 유명한 초상화가 채응신(蔡龍臣, 1850~1941)이 그렸다. 황중윤은 전주 경기전 참봉과 부안 군수를 역임한 인물로, 석전 황옥의 조부이다. 큰 눈과 오른쪽 뺨의 점 등 황중윤의 외모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고, 관복에 가는 선을 그려 재질감을 표현하였다.

석전의 수집품

전북지역 서화가의 작품, 전적 등 석전이 수집한 유물을 전시한 코너이다. 우리나라 서예사와 유학사, 대외항쟁사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반
계
수
록
磻
溪
隧
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각종 제도에 대한 고증(考證)과 그 개혁의 경위를 기록한 책으로 목판본이다. 전제(田制), 교선(敎選), 임관(任官), 직관, 녹제(祿制), 병제(兵制)와 그 고설(攷說) 또는 후록(後錄)을 실었으며 보유(補遺)에는 군현제(郡縣制) 등을 실었다. 조선사회경제 특히 전제 연구 및 제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석전 황욱선생 서예 작품

석전의 서예작품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7~1993)은 한국의 근현대기 격동의 시절을 보내며 그 시대만큼이나 격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노년(老年)의 신체적 한계를 굳은 의지로 극복하고 그만의 새로운 경지를 이룬 서예가였다.

석전은 이재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7대 손으로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에서 태어났다. 6세 때 서당에서 한학을 시작하며 서예에 입문하였다.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순탄한 유소년시절을 보냈으나 일제강점기를 맞아 1920년 금강산 돈도암에 들어가 망국의 한을 달래며 서도에 전념하였다. 10년 뒤에 귀향하여 고창과 정읍 등의 율객을 규합하여 율계회를 결성하였고 가야금과 활쏘기로 교우 관계를 넓혔다. 자녀교육을 위해 전주로 이거할 만큼 자녀사랑이 깊었던 석전은 한국전쟁과 그 이념의 틈바구니에서 두 아들과 생이별 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를 지필묵과 시, 가야금으로 달랬다.

그러나 한갑 이후에는 수전증이 찾아와 손바닥으로 붓을 쥐고 글씨를 쓰는 악필로 전환하였다. 87세 이후에는 수전증이 심하여 오른손 악필마저 어렵게 되자 왼손으로 바꾸어 이를 극복하였다.



악필이전

석전은 초기에는 쌍구법에 의한 해서·행서·초서의 서체를 즐겼다. 그러나 석전이 젊었을 때의 작품은 몇 점만 알려져 있다. 석전은 금강산에 들어가 왕희지(王羲之, 303~361)와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글씨를 학습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로는 자하 신위(申緯, 1769~1845)를 사숙했다. 그의 초기의 해서에서는 이들의 필적을 엿볼 수 있다.

만은처사항공묘갈명

1942년(45세)에 쓴 글씨이다. 앞면의 제자(題字)에서 왕희지의 해서체를, 본문에서는 왕희지풍의 행서를 볼 수 있다.



운강서실(雲岡書室)

이 작품은 중국 왕희지(王羲之, 307~365)와 조맹부(趙孟頫, 1524~1322)의 서예세계를 지향한 신위(申緯, 1769~1845)의 글씨를 바탕으로 1964년에 쓴 글씨이다. 이후 군선 기운인 금석기(金石氣)가 강해지는 악필(握筆) 이전의 작품으로 행서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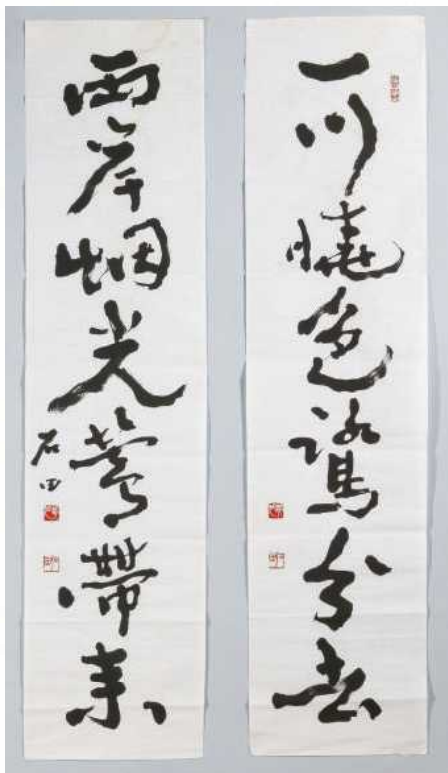


우수악필(右手握筆)

석전은 환갑이후 찾아온 수전증을 극복하기 위해 70대부터 악필을 구사하였는데 70대 중반에는 창암의 필법을 연구하였다. 이는 어깨의 힘을 빼어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런 서체, 일체의 기교를 허락하지 않는 무심이 정필이 되어 꾸밈없이 마음을 담는 글씨를 구사하기 위함이었다.

칠연시대련

넉넉하게 베풀어진 짜임과 덜덜 떠는 전필(顫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석전의 필법이 원활하게 구사되어 있어 우수악필의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다.



좌수악필(左手握筆)

석전은 오른손의 수전증이 심하여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87세 이후에는 왼손으로 붓을 바꾸어 잡고 이를 극복하였다. 이로 인해 떨리는 전필과 거친 필획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악필에 더한 선생의 마음이 글씨와 어우러져 기교가 없으나 마음속에서 우러난 글씨로 노송과 같은 분위기로 배어나게 된다. 석전은 90이 넘는 나이에 많은 작품을 남김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완숙한 예술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



용상봉무(龍翔鳳舞)

‘용이 날고 봉황이 춤을 춘다’는 뜻이다. 93세에 쓴 작품으로 석전의 강한 서체가 잘 나타나 있다. 왼손으로 붓을 잡고 쓴 글씨이다.

이렇게 자기 극복과 정진이라는 삶의 여정에 비로써 석전의 글씨는 옛 서풍의 정확한 이해 위에 자신만의 개성적인 필의가 담긴 것으로 필법 속에 있으면서도 서법을 떠난 넉넉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석전의 생애를 손과정(孫過庭)의 『서보(書譜)』 중 삼시(三時)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여 글씨의 규범을 이해하는 데에는 젊은이가 늙은이만 못하고, 배워서 글씨의 방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늙은이가 젊은이만 못하다. 생각은 늙을수록 더욱 모해지고 배움은 젊을수록 더욱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힘쓰기를 그치지 않으면 문득 세 시기가 있게 되니, 그 시기마다 일변(一變)하면 그 나뉘미 극명해진다. 즉 처음에 분포(分布: 점획의 배열)를 배울 때에는 단지 평정(平正: 평이하고 단정한 글씨)을 구하고, 이미 평정을 알면 험절(險絶: 강렬하고 분방한 글씨)을 쫓는데 힘쓰며, 이미 험절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평정으로 되돌아간다. 처음은 아직 못 미친 것이고, 중간은 지나친 것이며, 그런 뒤에야 통회(通會: 두루 통하여 깨달음)하게 된다. 통회의 경지에 이르면 사람도 글씨도 다 늙는다[人書俱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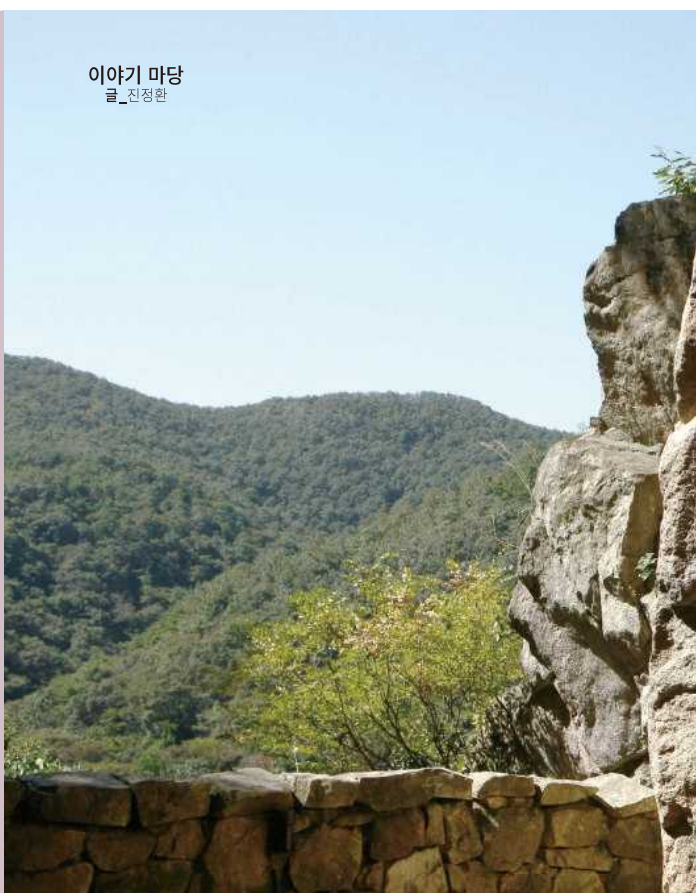
손과정의 말처럼 석전도 평정, 험절을 거쳐 노년의 평정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석전의 평정은 격식을 벗어난 험절이었으며 이는 결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노구(老樞)의 외로운 투혼의 결과였다.

서산 마애불 앞에서

1992년 봄.

대학 1학년 첫 번째 과의 답사는 충청도를 거쳐 서울의 유적을 둘러보고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20년도 전이니 지금은 부소산 아래에 있던 옛 부여박물관과 서산 마애불만큼은 아직까지 기억이 뚜렷하다.

보호각 안의 마애불 머리 위에서 백열등을 옮겨주고 있던 아저씨가 있었다는 것과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하게 웃고 있는 부처는 머릿속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의 감동이 나를 불상 연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8년 2월.

미술사학과 대학원에 입학이 결정된 후, 대학원 첫 답사 역시 충청도지역이었다. 거금을 주고 장만한 니콘 F3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서산 마애불이었다. 그때도 1992년의 그때처럼 관리인이 전등불을 비추어주었다. 노란빛 아래의 부처는 첫 번째 보았을 때와 변함이 없었다. 수동 카메라의 조작이 서툴렀지만 그때 찍었던 슬라이드는 아직도 집 서재의 서랍에 있다.

2012년 여름.

이름 해수욕장에 갔다가 전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서산 마애불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 전에 있던 보호각이 뜯겨 없어졌기 때문인지 관리인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태양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3분의 부처와 보살은 한 없이 행복해 보였다.

서산 마애불은 인근에 있는 태안 마애불에 비해 근엄하지 않아 좋다. 어쩌면 우리의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아기의 얼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다. 불교조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불상의 양식이 어떻고, 중국의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 불상의 존명이 무엇인지를 궁리하는 것이 응당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산 마애불 앞에 서면 그러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환하게 웃고 있는 본존불의 들창코를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우협시보살의 알 듯 말 듯 한 웃음은 또 어떠한가. 반가좌를 하고 손을 뺨에 대고 있는 좌협시보살은 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고뇌했던 염부수閼淨樹 아래의 싹다르타 태자도, 미래에 중생 구제의 서원을 간직한 도솔천의 미륵보살의 심각함도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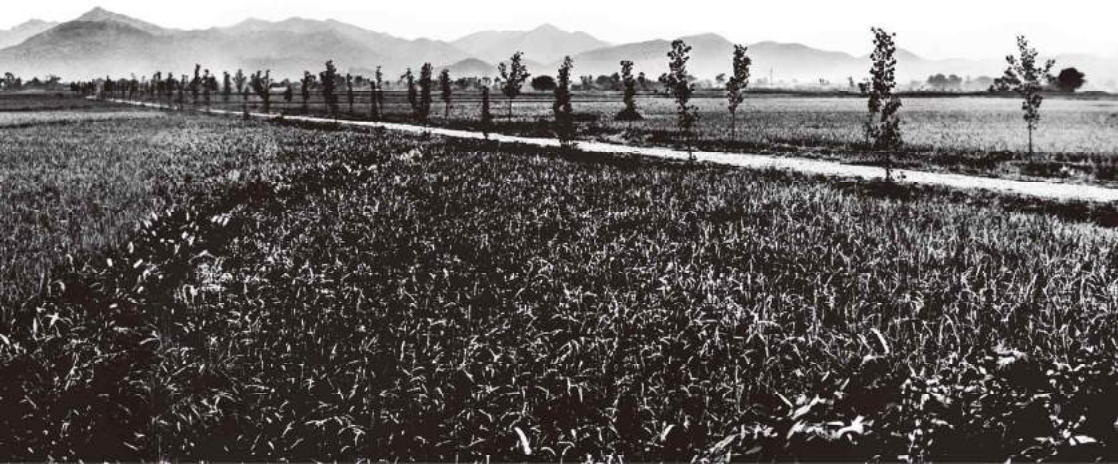
이 세 분의 부처와 보살을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찾았던 사진관이 떠오른다. 카메라 렌즈 앞에서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능수능란한 사진사는 재미난 이야기로 긴장을 풀어주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환한 웃음을 지을 때 셔터를 눌러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어내곤 했던 기억이 난다. 서산 마애불 인근의 일가족을 모델로 삼았을 불상 조각가도 그러했을 것이다.

서산 마애불은 부처가 사람이 다다르기에 너무 멀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닌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글이나 말이 아닌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사랑스럽다.



전주시의 옛 모습

1915년 전주부[전주시]를 북에서 남으로
바라보고 찍은 조선총독부의 유리건판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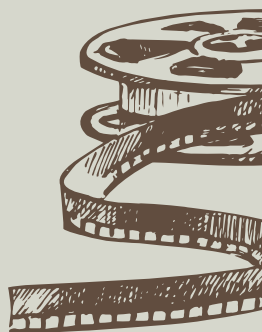


촬영지점은 아마도 동정리(서노송동)의 구릉지대 앞에서 전주 시가지를 바라보고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으로 멀리 고덕산이 있고, 좌측으로 승암산이 이어지며, 사진 중앙의 낮은 부분이 오목대 일대이다.

사진에서 오른쪽 익산방향으로 연결되는 신작로가 길게 이어져 있고, 철도는 아직 부설되기 전이라서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 논만 가득 펼쳐져 있다. 그리고 시가지는 약간의 수목과 함께 희미하게 건물과 굴뚝만 관찰될 뿐이다.

한편 전라감영을 품고 있던 전주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로 한 해 전인 1914년 일제에 의해서 전주성의 거의 모든 성벽이 강제로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약속>과 한국 교회 최초 순교지 ————— 전동성당



1998년에 개봉한 김유진 감독의 영화 <약속>은 박신양과 전도연이 주연을 맡은 멜로액션 영화이다.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아마 영화를 본 모든 이를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장면으로 유명하다. 영화 <약속>은 조직 폭력배 보스 공상두(박신양 역)와 여의사 채희주(전도연 역)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태로운 사랑을 힘들게 이룬다는 스토리이다.

공상두는 자신으로 인해 채희주가 다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녀를 떠나려고 하나 부친을 잃고 공황상태에 빠진 채희주는 상두를 찾아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던 중 심복을 죽인 반대파에 대한 복수로 인해 공상두는 잠시 잠적을 한 후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채희주를 찾아온다. 살인자가 된 공상두가 다시 채희주에게 돌아오면서 라스트 씬으로 연결되는데, 채희주는 공상두를 성당으로 데리고 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선언하는 장면이 전개된다. 끝내 공상두는 회한의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울먹이는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당신께서 저한테 니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운 거 있죠.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저 정말이지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서로 헤어지는데, 영화 전반에 걸쳐 제시카의 ‘Good Bye!’라는 곡이 어우러져 영화는 더욱 감동을 준다.

많은 연인들을 올린 <악숙>의 라스트 씬을 촬영한 장소는 바로 한국 교회 순교 1번지인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전동성당이 위치한 자리는 조선시대 전주감영이 있던 풍남문 밖으로 1791년 신해박해 때 윤지충과 권상연이 처형당한 곳이며 이후에도 1801년 신유박해 때에도 많은 카톨릭신자들이 순교한 장소이다. 정약용의 외사촌 동생인 윤지충은 종교적 차원으로 서학을 받아들이고 북경으로 건너가 세례를 받고 돌아와 조상의 위패를 모두 불사르며 제사를 폐하겠다는 선언하여, 당시 성리학의 충효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대역사건의 장본인이 되었다. 따라서 그와 추종자들은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어 조선시대 최악의 형벌인 능지처참형에 처해졌다.

전동성당은 1891년 전주성당 주임인 보두네 신부가 조선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을 기념하여 전주감영 부지였던 현재의 성당터를 사들여 임시 본당으로 삼았다. 이후 1908년에 명동성당 내부를 건축한 프라넬 신부의 설계로 착공되었으며 1931년에 최종 완공된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건물이다. 로마



네스크 양식건물로서 성당 중앙 종탑과 양쪽 계단에는 비잔틴 양식의 뿔족 돔을 올렸으며, 성당 내부의 석조 기둥에도 비잔틴 양식이 녹아 있다. 200년도 안 되는 한국의 교회 건축물 가운데 곡선미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건물로 손꼽히는 서울 명동성당·대구 계산성당과 함께 성당건축의 백미로 알려져 있다.

성당은 화강암을 주춧돌로 하여 붉은 벽돌로 지어졌는데, 주춧돌은 착공당시 통감부가 혈은 전부부성의 성벽돌을 이용하였다. 성당을 구성하는 벽돌도 헐린 성벽에서 나온 흙을 구워 만들었다. 따라서 붉은 벽돌과 어두운 색조의 화강암이 어우러져 매우 중후하고 경건한 느낌을 주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이며 당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누구라도 한번 전동성당에 가면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윤지충과 사랑을 위해 자수를 결심하며 연인 곁으로 돌아온 공상두의 그 비장한 마음을 온몸 가득히 느끼게 될 것 같다.

겨울의 맛, 과메기

추운 바닷바람이 만든 과메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과메기는 겨울철에 청어나 공치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그늘에서 말린 것으로, 경북 포항 구룡포가 대표적인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겨울철 별미이다. 원래 청어를 원료로 만들었으나 1960년대 이후 청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어 대신 공치로 과메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등푸른 생선을 대표하는 생선 중 하나인 청어는 옛 선조들이 이 물고기에 푸를 청(靑)자를 붙이고도 부족했는지 진짜 푸르다고 진청(眞靑)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선조들의 청어에 대한 애정이 깊었음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중국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다섯 명의 제후들이 청어 요리를 즐겼다고 해서 귀한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오후청(五侯鯖)이란 말이 유래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청어가 흔하게 잡혀서인지 선조들은 청어를 두고 가난한 선비를 살피우는 고기라 해서 '비유어(肥儒魚)', 혹은 '비웃'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황필수(1842-1914)가 각종 사물의 명칭을 고증하여 1870년에 펴낸 책인 『명물기략(名物紀略)』에서도 '비웃'의 어원을 "가난한 선비들이 즐겨 먹어 그 선비들을 살피게 한 물고기, 비유어(肥儒魚)로 쓴다"고 했다. 청어를 중국말로 비유[肥魚]라 하는데 이것을 새로 비유어로 만들었고, 또 줄여 비웃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후청이라 불리며 귀하게 대접받던 청어가 비유어로 불리게 된 이면에는 묘한 역설의 미학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 선비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제후의 음식을 통해서 잠시나마 잊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청어를 말린 것은 관목(貫目)이라고 한다. 과메기라는 명칭은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 말렸대(乾靑魚)는 관목(貫目)에서 유래한다. '목'을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하여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이' 탈락하면서 '과메기'로 변천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규경(李圭景, 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算稿)』 만물편(萬物篇) 중어류(蟲魚類) 용어변증설(鱸魚辨證說) 청어편에 '청어는 연기에 그을려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를 연관목(煙貫目)이라 한다(靑魚...薰於煙窓以免餒 名以煙貫目)'고 쓰여 있고, 『규합총서(閩閩叢書)』에는 '비웃[청어]을 들어 보아 두 눈이 서로 통하여 말갛게 마주 비치는 것을 말려 쓰는 그 맛이 기이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과메기를 먹게 된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918년 신문관에서 발행한 재담집 『소천소지(笑天笑地)』에는 "동해안의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배가고파 바닷가 나룻가지에 청어가 눈이 꿰인 채로 얼말려 있는 것을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겨울마다 청어의 눈을 꿰어 얼말려 먹었는데 이것이 과메기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전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뱃사람들이 배 안에서 먹을 반찬이나 할 요량으로 배 지붕 위에 청어를 던져놓았더니 바닷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는 반복하여 저절로 과메기가 되었다는 설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작이야 어찌 되었건 예부터 청어 산지로 유명했던 포항 앞바다의 사람들은 대나무에 청어의 눈을 꿰어 부엌 창문이나 처마에 매달아 놓았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 밥 지을 때 흘러나오는 따듯한 온기에 거듭 얼었다 녹았다는 반복한 청어는 궁중 진상품으로도 그 이름을 높였다고 한다.

겨울철 국민음식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꾸덕꾸덕 말린 햇과메기를 초장에 찍어 김과 물미역에 싸먹으면 기름진 고소함이 입 안 가득 밀려오며 진정한 겨울이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자원해설자의 한마디

나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힘없고,
추하게 늙는 것도 싫다.
정말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보고,
때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환경에 대한 사물들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느껴보고 싶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벌써 네 번째 해를 넘은 것 같다. 이제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찾아오는 길이 당황스럽지도 않고 성급하게 이어지지도 않은 내 나름대로의 활동방식도 심화된 느낌이다.

외국인 관람객까지도 관심 있게 통역을 담당해야 할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각 실을 만든 “큐레이터”들이 의도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또는 흥미롭게 설명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간을 핵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전래적 고전도 함축성

있게 설명해주어야만 즐거워할 것으로 생각해본다.

아무튼 전문가의 깊이 있고 역사성 있는 해설품이는 항상 공부하고 익혀가는 전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힘차게 떨어지고 평평한 곳에서는 고요히 흐르듯,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윤택도 원활한 맛이 깃든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 탓을 뛰어넘고 싶기도 하다.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게 늙고 싶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친숙하고 편안하고 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역동적으로 활동적인 장소로 내안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기도 하다. 박물관 안의 유구한 유물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과 그 역사의 고증들이 있어 이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이며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것은 때로는 일상의 소란과 번잡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먼 과거를 향하는 산책해보는 시간이고 또 그 유물들과 직접적인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안내 및 해설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인 나는 자원활동가의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문화재(文化財)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창의적(創意的)인 생각을 담아 확장해 나가는 기회도 마련해 보고 싶다.(나이트 사람의 욕심(欲心)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국립전주박물관의 자원봉사 활동은 나에게 있어서는 활기(活氣)차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본다.

국립전사박물관 이모저모

국립전사박물관은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소재 육군부사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육군부사관학교는 지난 9월 21일 개관한 국립전사박물관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있다.

국립전사박물관은 익산시 내에서는 최초로 개관한 국립박물관이며, 육군 내의 국립박물관으로는 두 번째이다.

전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육군부사관학교 장병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공모전에서 군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관의 혼과 역사를 잘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

흔히 ‘전사’라고 하면 전쟁의 역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육군부사관학교 전사박물관은 역사 사주 대신 선비 사士자를 사용해 ‘Warrior’란 의미를 강조하였다. 7만 부사관의 모교인 육군부사관학교에 전사戰士 관련 전문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부사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사박물관은 연 1만여 명의 교육생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오는 연 10만 여 명의 방문객에게 전투 유물과 호국 위인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군의 문화적 소통과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사박물관은 주제별 총 4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전시실

1전시실은 부사관 역사실로서 육군부사관학교의 내력과 교육목적, 부사관의 역사와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부사관은 전투현장의 실질적인 행동 주체이며, 병 개인 훈련 및 주특기훈련의 전문기관, 물자·장비·시설 등의 전문가로서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 부사관의 기원과 역사, 부사관 양성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육군부사관학교의 연혁과 관련 유물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10만 부사관 시대에 점차 높아질 부사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

제 2전시실

2전시실은 6·25전쟁 영웅실로서, 총 1,129일간의 6·25전쟁을 크게 다섯가지 국면으로 분류하여 사진, 설명, 도표, 유품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직전 적의 도발로부터 육탄공격을 통해 아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적 진지 탈환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부사관 출신 육탄 10용사의 전투사례와 당시 부사관 출신으로 각 전장에서 활약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 가운데 태극·을지무공훈장에 빛나는 최득수 이등상사, 연제군 이등중사, 김만술 특무상사 등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다.



제3전시실



3전시실은 전통무기실로 우리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무기를 전시하고 있다. 한민족 고유의 자주성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각종 전술과 무기를 개발·활용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들에게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무한한 저력을 보여주었다.

전통무기실은 시대별로 소부대 전투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무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세형동검과 동시대에 전투에서 실제로 쓰였던 각종 석기류,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무기인 궁시·弓矢, 고려 말부터 개발되어 조선시대에 외적·外敵을 격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각종 총통과 근대 총기류까지 500여 점의 진귀한 무기를 전시해 한민족 무기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임금을 직접 수행하던 정2품 무관이 직접 패용했던 별운검과 KBS 대하사극 징비록에 등장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장손李長孫 화포장이 개발하여 경주성 탈환전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백선엽 장군이 사용하던 쿨트 자동권총 등의 진품 유물이 눈길을 끌고 있어 각 시대별로 당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호국 전사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제 4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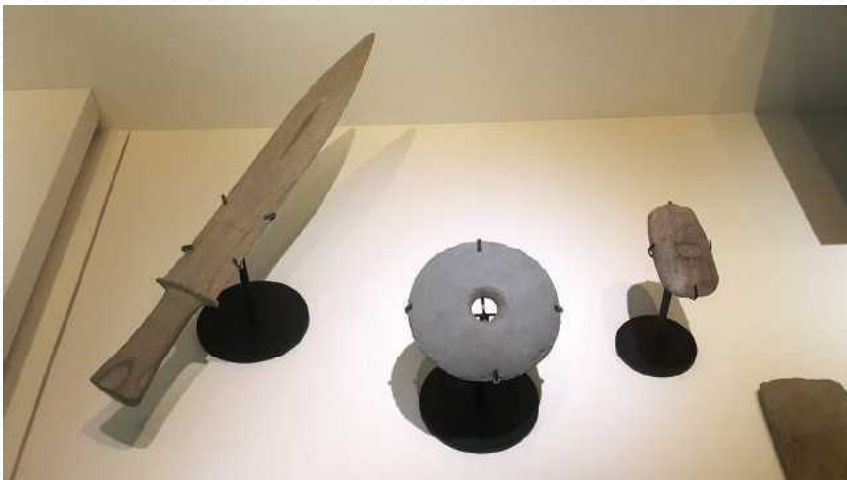
4전시실은 서화실로, 역사적으로 부국강병과 문예 부흥은 크게 보면 그 맥을 함께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호국 위인과 당대의 이름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서화실의 존재는 국립박물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국립전사박물관만의 특징이다.

서화실에는 성리학의 이론을 크게 발전시켜 동방의 주자로 불리웠던 퇴계 이황의 시,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징비록'의 집필가였던 서애 류성룡의

편지, 조선의 최고 명필가 추사 김정희의 시, 조선말기 개혁정치를 시도했던 흥선대원군의 그림,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의 휘호, 현대 한국 화가의 거장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 6·25종군 화가 대항 이중섭, 바보화풍으로 유명한 윤보 김기창의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그들의 올곧은 신념과 의지는 각 작품을 통해 조용하지만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향후 국립전사박물관은 주제에 걸맞게 소부대 전투기술과 관련된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전시하여 외부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군인·어린이·중고생·대학생 등의 각 계층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 및 계승을 가능하게 했던 호국‘전사’들의 존재와 그들이 지녀온 ‘상무정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점차 대외로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립전사박물관 인터뷰

김계환 운영장교(육군대위)

Q. 국립전사박물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저는 장교로 군에 복무하기 이전에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군문軍門에 들어선 이후에도 한민족의 상무정신이나 전쟁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중대장 임무수행을 하면서도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휘관 시간을 활용하여 역사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인의 신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우려나오기 위해선 역사의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육군부사관학교 역사관을 국립박물관 수준의 전문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학교장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국립박물관 개관 프로젝트 요원을 모집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여하길 적극적으로 희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가 근무하던 교육대 지휘관의 허락 및 추천으로 국립전사박물관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국립전사박물관 특별임무조(Task Force)의 일원으로 임무를 하게 되면서 난생 처음 실제 유물을 책속이 아닌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되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또한 유물 작업을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되어 각종 유물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연속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학교장님의 배려로 전사박물관 운영장교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현재까지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국립전사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박물관을 대표할 만한 유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격진천뢰는 KBS 대하사극 징비록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장손 화포장이 기존에 있었던 ‘진천뢰’를 더욱 발전시켜 불발률을 줄이고 시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종 육해전에서 경이로운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주성 탈환 전투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비격진천뢰는 현재 전국에 6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사박물관에 전시된 파편형태의 비격진천뢰는 실제 전투에 사용된 것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으며 당시 나라를 위해 혼신을 다해 전투에 임했던 전사들의 혼이 느껴지는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간 박물관 업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물관 개관 직전 막바지에 심혈을 기울였던 전통무기실 패널 내용 작업이 생각납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사학을 전공했지만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다가 2010년 장교로 임관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전공과 연계되는 임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시절에 그나마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사박물관 개관이라는 막중한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주제별 역사적 사실들을 요약·정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부족한 점을 공부해나가며 뼈저리게 느껴왔던 수사적修辭의 빈곤함을 채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박물관 업무와 직접 연관있는 고고학에 대한 용어 개념이 없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애썼던 일련의 과정들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국립전사박물관은 국내 최초 ‘전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관한 박물관으로 비록 개관한지 3개월 정도 되었지만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에서 계속 임무수행을 하는 동안에 ‘전사’에 대한 주제를 특화시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사’전문 박물관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부대 전투기술과 관련된 전사들의 혼과 땀이 서려있는 각종 무기류를 확충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전술적 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고고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박물관 운영 노하우를 두루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장교로 임무수행을 하면서 관련 전공의 학위 취득과 전국의 역사·고고학 특강에 두루 참석하여 견문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각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호국 전사들과 관련된 유물 전시와 역사 교육을 통해, 부사관 교육생은 물론 민간에까지 상무 정신을 널리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군·민의 문화적 소통의 장으로서 국립전사박물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부사관학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도로 위를 달리다보면 육군부사관학교라는 표지판이 나타나고 얼마 뒤 위용威容이 넘치는 부대의 입구가 보인다.

국립전사박물관은 육군부사관학교 정문에서 멀지않은 근처 건물에 위치해있다. 2층 건물의 투박하지만 단정한 기운이 느껴지는 국립전사박물관의 입구에 가까이 가보면 ‘국립戰士박물관’이라고 쓰여 있는 현판이 눈에 띈다. 아기자기한 어린아이 글씨체 같으면서도 뭔가 힘이 느껴지는 휘호는 바로 창군주역이자 6·25전쟁의 살아있는 영웅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이 쓴 휘호를 동판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 휘호를 보고 있으니 노장老將의 힘찬 기운과 무한한 저력이 느껴지는 듯 했다.

국립전사박물관은 총 4개의 주제로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전시실은 육군부사관학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육군부사관학교의 역사적 기록과 부사관의 활동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유물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시대에 걸쳐 변화된 군복과 여러 교육자료 등을 통해 복잡할 것만 같았던 부사관의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 2전시실은 6·25전쟁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사진과 유물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부사관 출신 ‘육탄 10용사’와 각 전장에서 활약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전시실은 부대원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져 부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제 3전시실은 전통무기와 상무尙武정신을 주제로 조국을 수호했던 전사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유물을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시하고 있다. 시대별로 기원전 3세기부터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세형동검과 동시대에 전투에서 실제로 쓰였던 각종 석기류,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무기인 궁시弓矢, 고려 말부터 개발되어 조선시대에 외적外敵을 격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각종 무기류 등 500여 점의 진귀한 무기를 전시해 한민족 무기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제 4전시실에 들어서면 “역사적歷史的으로 부국강병富國強兵과 문예부흥文藝復興은 그 맥脈을 같이 한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군사 관련 박물관에서 서화실의 존재는 달리 생각해보면 어울리지 않을 듯 해보이지만 ‘부국강병과 문예부흥은 그 맥을 같이 한다’라는 글귀를 되짚어보면 그리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국립전사박물관만의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서화실에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100여점으로 주로 호국護國 위인과 당대의 이름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위주로 전시되어 있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한국 고유의 미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한 신념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국립전사박물관 전시 관람은 군부대의 특성상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유선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예약을 해야 한다. 차우 위병소 출입과는 별도로 박물관 자체의 출입시스템을 갖출 예정이고, 관람 안내와 예약접수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진행 중에 있어 16년도부터는 박물관 관람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항만 주의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하며 조국애와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전사박물관 대표전화 : 063-859-6968





전시 리뷰
글_신재근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毅齋의재 허백련

2015 2016
11. 24. - 02. 21.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 선생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허백련은 진도 출신의 화가로 19세기의 남종문인화가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9-1892)의 방계 후손이다. 허백련은 허련의 아들 미산(米山) 허형(許滢, 1862-1938)에게 그림의 기초를 배웠고, 진도에 유배 중이던 대학자 무정(戊亭) 정만조(鄭萬朝, 1858-1936)에게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법학을 공부하기도 하였으나 중도에 그만두고 그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일본 도쿄에 약 6년간 머무르며 박물관 등에서 중국의 명화들을 탐구하였고, 당시 일본의 대표적 남종화가였던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을 만나 그림을 배우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는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받고 전통화단에 당당히 그 이름을 알리게 된다.





허백련은 산수화, 사군자화, 화조영모화, 기명절지화 등 다양한 화목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화가였다. 이번 전시에는 허백련의 그림이 화제별로 망라되어 있어 그의 예술 세계를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되는 것은 산수화이다. 허백련은 40대 중반까지도 다양한 화풍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시도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을 만들어나갔다. 한껏 원숙한 기량을 드러내보이는 60대에 이르면 의도인(毅道人)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하

습을 엿볼 수 있다. 제시가 아닌 독립된 서예 작품도 다수 전시되고 있다. 허백련은 스승 정만조에게 글씨를 배웠으며 그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체에 대한 연마를 통해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이루었다고 한다.

전시 후반부에는 허백련의 화풍을 계승한 후학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50여점에 가까운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그 규모만으로도 남도 화단에 드리워진 허백련의 영향력이 짐작된다. 1938년 허백련은 광주에 정착하면서 ‘연진회(鍊眞會)’라는 서화단체를 꾸려

“

나는 처음부터 내 그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미산(米山, 허형) 그림 같았고, 후에는 소치(小癡, 허련) 그림, 또 중국의 대치(大癡, 황공망) 그림과도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내 그림은 미산 것도 소치 것도 아니다. 개성은 어디까지나 전통 위에서 꽃피워야 하며, 처음부터 자기 독단의 개성은 생명이 길지 못하다. 전통을 철저히 갈고 닦으면 자연 자기 것이 된다.”

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허백련은 전통 문인화가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끊임없는 탐구와 수련을 통해 그 본질에 이르고자 했으며 마침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일구어낼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 허백련의 ‘글씨’를 감상해보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허백련의 그림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직접 쓴 제시가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고전과 시문을 두루 섭렵했던 ‘문인(文人)’ 허백련의 모

문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1945년에는 광주 무등산 자락에 ‘춘설헌(春雪軒)’을 마련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번에 소개되는 후학들의 작품들은 시기적으로 연진회 시절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이들 작품을 통해서 문인화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왔고, 또 새롭게 해석되어 어떤 변주를 이루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 회화의 세계가 관람객들에게 거리를 좁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Welcome to
Windy City'



시카고 박물관 탐방기





시카고 도시이야기

‘Welcome to Windy City’

시카고에 다다르자 도착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왔다. 뮤지컬 시카고, 시카고 컵스에서 피자까지 시카고를 연상시키는 많은 단어들은 나에게 기분 좋은 설레임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시카고는 미국 일리노이주(州)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호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인 미시간호(湖)에 이웃하고 있다. 인구는 약 280만 정도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초원지가 대부분으로 이뤄진 시카고는 바람이 많은 도시다. 윈디시티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시카고는 1871년 도시의 70% 이상이 화마에 휩싸인 대화재 사건 이후로 대대적인 계획 하에 건축물과 도시가 세워졌다. 때문에 세계 유명한 건축학교가 시카고에 위치해 있으며, 대화재 이후로 만들어진 현대적 건축물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은 네이비 피어(navy pier)에서 배를 탄다. 밤이 되면 이 건축물들로 더욱 멋진 야경의 시카고가 되었다. 이러한 도시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이 있을지 더욱 궁금해졌다.



필드 자연사박물관 Field Museum

시카고에는 미국 최초 천문관인 애들러 천문관(Adler Planetarium), 웨드 아쿠아리움(Jone G. Shedd Aquarium), 미국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필드 자연사박물관 세 곳이 모여 Museum Campus를 이루고 있다. 필드 자연사박물관은 인류, 지질, 동식물, 이집트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다.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의 배경으로 나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필드 자연사박물관은 이러한 방대한 유물과 자료들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시기법(체험전시 등)이 적용되어 있었다. 단순한 집합전시 위주가 아닌, 유물 혹은 전시에 대한 메시지를 인터랙티브한 전시방법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였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재미있게 인류와 동식물, 문화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박물관이었다. 필드 자연사박물관에서 특히 인기 있는 시설은 바로 3D상영관이었다. 공룡, 기후문제 등 주제를 선택한 후, 3D를 감상할 수 있다.(물론 유료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인상파, 미국 근대 미술 등 시대를 아우르며 대표 하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상파 작품을 보러 이곳에 오는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르주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Ein Sonntagnachmittag auf der Insel La Grande Jatte, 클로드 모네의 <초초더미> Getreideschober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시카고 어린이박물관

시카고 어린이박물관은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인 미시간 호수 내 네이비 피어 빌딩 안에 위치한 공원에 산책 나오는 가족들, 무언가 필요해 쇼핑을 나온 사람들 등이 쉽게 입장할 수 있다. Kids Town, Dinosaur Expedition, Water Ways, Micheal's Musuem 등을 주제로 '어린이' 발달과 지능 특성에 맞도록 자연, 건축, 과학, 안전, 실체놀이 체험해 볼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특별전이 열리기도 하는데, 현재는 'Boats' 체험전이 열리고 있다. 건축과 관련 깊은 도시인 만큼 체험코너 중 건축, 구성과 관련된 체험 전시 Skyline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만든 창작물을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참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박물관 속 카페이야기

점점 추워지는 날씨..첫눈이 한차례 지나간
완연한 겨울이 돌아오면 따뜻한 차가
그리워진다.

본관 2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향이 맴돌고 있다.
카페 “느리게 걷기”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와
다소 딱딱했던 전시실을 온화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며 은은한 커피향이
아름다운 유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직접 삶아 곱게 간 고구마 라떼, 새콤하고 달콤한 오미자와 복분자 등 주인아주머니가 직접 삶아 만든 팔빙수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와 디저트를 맛 볼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는 여우비, 와송, 솔방울, 대생차 등 흔히 들어볼 수 없던 여러 종류의 정성이 들어간 차를 직접 담귀 맛있는 차로 마실 수 있다.

“느리게 걷기”에는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그곳에는 넓은 창이 있어 박물관의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볼 수 있는 점이 또 하나의 자랑이다.



국립전주박물관 “느리게 걷기”에서 달콤 짭짤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전시와 더불어 아름다운 박물관 정원을 감상하는 것도 낭만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의 : 전시실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카페에서만 마시는 걸로...
OPEN : 화요일-일요일(월요일은 쉽니다.)



지난 8월 어린이박물관을 새 단장한 후 국립전주박물관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상반기 ‘토요일 박물관 가족탐험대’·여름 방학 ‘어린이박물관 나들이’·하반기 ‘박물관 숲’ 등 가족 프로그램 또한 다양해졌다. 가족과 함께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을 위해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 인솔자들이 박물관 교육을 ‘학습’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박물관은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으로 생각하고 찾게 된다.

박물관은 낯설고 어려운 곳이 아니다. 교과서에서 본 아름다운 유물들이 놓여있고, 책에서 읽은 우리 고장 이야기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 바로 박물관이다. 따라서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 박물관에 방문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박물관 새싹 프로젝트’를 진행해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박물관 새싹 프로젝트’에는 우림초등학교 1~4학년 모든 학생들이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18회에 걸쳐 함께했다. 아이들에게 유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피하고, ‘감상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각 학년마다 적합한 주제를 가지고 ‘탐색 → 관찰 → 표현 → 생각나누기’의 4 단계를 거쳐 스스로 유물을 관찰했다. 유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살피기도 하고, 유물에 어떤 무늬가 있는지 자세히 관찰한 후 스케치하기도 했다. 또 전주와 관련된 유물, 조선시대 임금님과 관련된 유물 등 주제를 가지고 전시실 곳곳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 유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이 관찰한 유물들과 연계해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유물들과 연계해 자신을 표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박물관에 함께 오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거나 오늘날 우리 동네 지도를 완산부지도 스타일로 그려보기도 했다. 또 임금님 뒤에 항상 놓여있던 일월오봉도를 팝업카드로 화려하게 꾸미고, 유물 무늬의 상징성을 이용해 박물관 로고 디자이너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은 여러 교과(미술, 지리, 가을, 우리 고장 전주 등)와 연계한 표현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상상력이 풍부해짐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후 만족도와 박물관에서 활동을 하고 난 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유물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고, 상상력이 풍부해질 것 같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고 만족도는 전 학년 92%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새싹 프로젝트’를 통해 일 년에 한 번씩 꾸준히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은 새싹들이 이곳에서의 즐거운 기억을 거머 삼아 쑥쑥 자라나길 기대한다.

제1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국창 오정숙의 삶과 예술”



전시기간_

2015. 11. 17^(화) - 12. 13^(일)

전시장소_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3층)

전주역사박물관은 국창 오정숙선생이 기증한 유품들을 모아 한평생 소리에 몸담았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자 ‘국창 오정숙의 삶과 예술’ 특별전을 마련했다.

소리의 고장 전주가 낳은 최고의 소리꾼, 국창 오정숙은 판소리 최고의 등용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전주대사습놀이 제1회 장원이자 ‘여성 최초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이라는 판소리의 새 역사를 기록한 인물로 이번 특별전을 통해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정성콜렉션 김완식 선생 기증·기탁전

“정성이 꽃피운 아름다운 공유”



전시기간_

2015. 08. 29^(토) - 12. 31^(목)

전시장소_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2015년 기획전사인 김완식선생 기증·기탁전 ‘정성이 꽃피운 아름다운 공유’를 지난 8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고 있다. 전시는 정성콜렉션 대표인 김완식 선생이 수 십 년간 애정을 가지고 수집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등 150여점의 기증·기탁한 도자유물 가운데 진품 80점을 엄선하여 한국 도자기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골동품이 아니라, 역사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소중한 한국도자유물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정성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공유의 마음을 관람 하면서 오감(五感)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8회 기획특별전 “동진강-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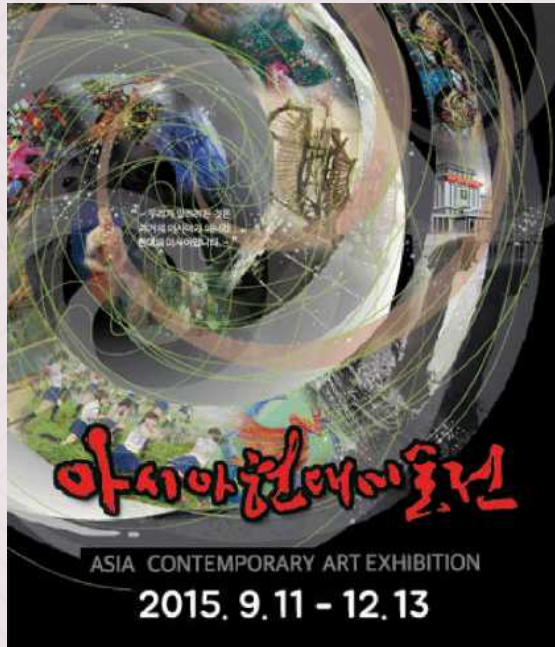
전시기간_ 전시장소_
2015. 09. 22^(화) - 2016. 02. 14^(일) 정읍시립박물관 문화체험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동진강’을 콘텐츠로 하는 기획특별전 ‘동진강,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를 지난 9월 22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열고 있다. 총 8부로 구성되는 이번 특별전은 정읍을 비롯해 전북 서남부 지역을 관류하는 동진강에 깃든 역사와 문화,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보여줌으로써 동진강을 재조명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고유물, 고문서, 민속자료, 옛사진 등 200여 점의 자료와 25편에 이르는 구술인터뷰 영상도 전시하고, 특히 기존에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이나 인물보다는 농민과 여성, 이주민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었다.

전시연출의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 스토리 중심으로 강가에서 살아 왔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진강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며, 동진쌀 재배, 문화강좌 및 답사, 탁본체험, 퀴즈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



전시기간_

2015. 09. 11^(금) - 12. 13^(금)

전시장소_

전북도립미술관 1-5전시실

전북도립미술관은 탈 서구화적인 시각에서 조망한 특별전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며 도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를 12월 13일 까지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도내 미술이 국제무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현대미술전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현대미술의 전위성을 가감없이 보여줄 작가와 작품을 선정했고, 도내 작가를 포함한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 동시에 한국 미술을 조명했다고 설명했다.

장석원 관장은 “매년 진행하는 아시아 국제전시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 아시아의 실상을 드러내고 역동성과 사회·정치적 모순과 혼란, 전통과 더불어 인권 문제까지 아울러 전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매년 전시를 개최해 전북이 아시아현대미술의 거점이 되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순회전

“생성과 상생”



전시기간_

2015. 11. 17^(화) - 12. 16^(수)

전시장소_

김제벽천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은 2015년 찾아가는 작은미술관을 김제벽천미술관에서 소장품 순회전 ‘생성과 상생’ 소장품 순회전을 12월 16일까지 열고 있다.

김제 지역을 대변하는 벽골제의 치수 기능과 관련된 '생성'과 지평선 위의 '상생'을 조망하여 생성의 조형성을 드러내는 추상 작품과 그 토대 위의 풍요로운 삶을 표현한 구상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다. 김제 시민과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벽골제의 생성을 사유하며 현재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상생의 삶을 위해 생성의 요소가 갖는 인식의 폭을 넓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황욱의 예술 세계 “석전명품선”



전시기간_

2016. 04. 07(목) - 05. 29(일)

개막식_ 2016. 04. 06(수)

전시장소_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3)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의 서예가이다. 평생을 걸쳐 예술혼을 불태웠던 석전은 많은 작품을 남겼다. 자제분인 황병근은 석전의 작품을 포함하여 5천점 이 넘는 유물을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석전명품선’은 황욱의 서예작품 중 전시공간의 제약 등으로 그동안 소개되지 못했던 대작 중심의 명품들을 선별하여 황욱의 서예세계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전시이다.

석전은 손바닥으로 붓을 쥐고 글씨를 쓰는 악필로 잘 알려져 있다. 악필 이전에는 쌍구법에 의한 해서, 행서, 초서 등을 즐겼다. 환갑이후 찾아온 수전증을 극복하기 위해 악필로 전환하였다. 87세 이후에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왼손 악필로 이를 극복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왼손 악필기는 석전 서예의 꽃이라 불린다. 이처럼 석전은 끝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루어낸 서예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석전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유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박물관 기증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원시 첫 사립미술관 수지미술관 개관 및 “남원으로의 초대”개관전

전시기간_
2015. 11. 20^(금) -
2016. 02. 28^(일)

전시장소_
수지미술관 본관

전북 남원시에 첫 사립미술관 수지미술관이 지난 11월 20일 개관하였으며
개관전으로 ‘남원으로의 초대’ 전시를 2016년 2월 28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자 원로인 유산 민경갑 화백의 작품을 비롯
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8명의 작가(국내작가 63명, 해외작가 5
명)를 초대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인 미술관의 설립자이자 한국 화가인 박상호는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남원시 수지면의 풍광에 매료되어 이곳에 미술관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심은희 관장은 “남원시민과 관람객들의 문화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지미술관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도 “수지미술관은 문화도시 남원을 빛나게 하는 문화자원으로써 앞으로 수지미술관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원으로의 초대’ 개관전은 문화예술도시 남원의 품격을 높이고, 남원 시민과 관람객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킬 다양한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수지미술관은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물머리로 525번지에 위치하며 8천㎡의 터에 지상 1층, 건물 면적 755㎡ 규모로 대형 전시실 1개, 일반 전시실 2개, 수장고,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야외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앞으로 젊은 화가들의 실험적 작품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작품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2016년 교육프로그램 일정

*희망계층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교육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063)220-1015, 1017, 1035, 1038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children/>

분야	과정명	교육기간	대상	내용
성인 매개자 (8종)	제 17기 박물관대학	3~6월	성인	한국 역사문화 강좌 - 도자기
	인문학 특강	5, 11월	성인	세계문화 등 관련 강좌
	전통문화 실기반	3~6월, 9~11월	성인	서예, 공예 등 실기과정
	문화리더 과정	7, 11월	공무원, 교직원 등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민, 공무원 등 문화역량 강화과정
	문화매개자 워크숍	5~10월	교사 등	박물관 활용 실무자 워크숍
	어린이박물관 부모교육 '라운누리'	연중	성인	박물관 교육배움 부모 공동체
	교육 실습생 과정	연중	성인	예비 전문가 양성 과정
어린이 가족 (3종)	온라인 교육자료실 '라운마루' 구축	12월 오픈	유초등생 및 교사	박물관 교육자료 온라인 서비스
	전주 어린이박물관학교	9~11월	초등 3, 4학년	연극, 답사 등을 통한 역사현장체험
	병아리 그림자 놀이	연중	유아 및 초등 1, 2학년	그림자 놀이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 박물관 경험
	전주박물관나들이	연중	유아 및 초등생	조선 왕실 문화 연계 체험 (일월오봉도, 복식 꾸미기 등)
청소년 (2종)	어린이박물관	연중	유, 초등생 등	
	청소년 큐레이터	연중	청소년	청소년 진로탐색 과정 (전시기획/보존과학/교육중 택일)
희망 계층 (3종)	새싹 프로젝트	연중	청소년	지역 초등학교 연계 학년별 교과연계 박물관 활동
	찾아가는 박물관	3~11월	한누리학교	박물관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유물 촉각 체험	4~11월	지적, 시각장애인	지적, 시각장애인 즐거운 유물 경험(촉각, 청각, 후각 등 활용)
	회화 감상	4~11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회화 감상 과정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
 '모두의' 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 구성원 모두가 잡지라는 의미
 全州의술의(온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뜻할 溫, 평온할 穩, 상을 醴 포함
 On은 (거리적 · 시간적으로) '진보하여' 라는 의미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주소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섣고개로 249
 전화 063)223-5651
 누리집 jeonju.museum.go.kr